

간성읍 죽왕면 토성면

▶죽왕면 시민기자
최돈불(choi3789100@hanmail.net)
▶토성면 시민기자
강성희(ruthcanada@hanmail.net)
김태극, 백옥식

※간성·죽왕·토성에서 발생하는 아기
자기한 소식이나 미담 등을 소개하는 시
민기자를 모집합니다. <문의 : 681-1666>

간성 김밥천국

김밥·분식·식사류

모든 메뉴를 포장·배달해 드립니다

681-9999

영동OA사무기

□디지털복사기 □소모품판매
□잉크젯·레이저 프린터 □팩스
□복합기렌탈 □LCD프로젝터

681-7607, 010-3179-7607

바다풍경 편의점

“경동대 입구·학생 환영”

각종 생활용품
문구류·케익류

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279
☎033-633-7282

간성·죽왕·토성 광고 문의
☎681-1666~7

‘문암대교’ 해안관광시대 열어

지난달 28일 준공식 ... 문암1~2리 연결, 관광인프라 확충



죽왕면 문암1리와 2리를 연결하는 문
암대교가 개통돼 주민들의 불편이 줄어
들게 됐다.

고성군은 지난달 28일 오전 10시
30분 문암 2리 교량 접속도로 시점부
에서 해안도로 연결사업 준공식을 개최
했다.

문암1~2리 해안도로 연결사업은 지
역간 교통불편을 해소해 미래형 녹색 인
프라를 구축하고, 이에 따른 관광소득
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 지난
2008년 연안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착
수됐다. 모두 88억1천만원의 사업비가
투입됐다.

사업량은 신설교량 프리-플렉스공법
을 이용한 교량연장 173m, 접속도로
387m, 조경 1식, 전기 1식이다. 특히
해안가 근처임을 감안해 교량범 및 교량
기초에 염해표면방지 시공을 해 부식을



지난달 28일 열린 문암1~2리 해안도로 연결사업 준공식.

방지했다.

현지 주민들은 “문암대교가 개통되기
전에는 문암1리와 2리 사이에 문암천이
흐르고 있어 서로가 다른 생활을 하며
많은 불편을 겪고 살았다”며 “공사가 완
료돼 주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됐다”고 환
영하고 있다.

주민들은 또 관광객들이 관동팔경의
하닌인 청간정을 산책로를 따라 구경하
고, 승용차나 자전거로 교암해변부터 문
암 백도 자작도 삼포 봉수 해변까지 경
유할 수 있게 돼 관광수입 증대에도 기
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.

백옥식 시민기자

‘숲·물·술’ 소재 이색 축제 열린다

소동령마을 여름 3탐방 축제 5~7일 ... “오감 만족할 추억 선사”

간성을 장신리 소동령마을회(위원장
이남성)가 주최하는 ‘소동령마을 여름 3
탐방축제’가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2
박 3일간 열린다.

소동령마을 여름 3탐방축제는 주민의
소득 증대 및 마을 홍보효과를 극대화시
키고 농촌체험 마을로서 주민 자긍심을
고취시키기 위해 소동령 마을 숲, 물,
술 등을 소재로 한 각종 이벤트 행사와
농촌체험 행사로 펼쳐진다.

이번 축제는 체험객 2,500명과 주민
50명 등 총 2,550명이 참가해 단조로
운 물놀이체험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
과 즐거움이 있는 농촌프로그램으로 진
행된다.

특히 지난해 3탐방 축제에 비해 남녀

노소 가족체험객을 대상으로 즐길거리
와 볼거리를 다양하게 보완해 마을을 찾
는 체험객들이 알거리, 즐길거리, 놀거
리, 먹을거리 등 오감만족 추억을 가질
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.

여름 3탐방 축제는 1탐방인 숲탐방
프로그램은 6일 오후 2시 소동령등산로
에서 숲 해설가가 체험객을 인솔해 소동
령 숲 생태에 대한 해설과 함께 등산로
하이킹을 진행하며 숲대만들기 체험부
스를 운영해 체험을 희망하는 관광객 누
구나 체험 할 수 있도록 한다.

또 2탐방인 물탐방에서는 6일 오전
11시 산천어 맨손잡기체험과 오는 7일
오전 10시 손수건 천연염색 프로그램으
로 진행된다.

마지막으로 3탐방 술탐방에서는 5일
오후 3시30분 권주가 장원급제와 6일
오전 10시 막걸리 제조교육과 시음행사
등 다채로운 체험으로 운영된다.

이 밖에도 숲 속 각종 공연행사와 영
화감상 프로그램 및 1급수분수체험, 토
속음식 즐기기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
수 있는 프로그램이 펼쳐진다.

고성군 관계자는 “소동령마을 체험행
사를 마을주민이 직접 운영함으로써 고
성군 농촌체험마을을 주민으로서 자부심
을 고양하고, 행사에 참가한 주민과 체
험객들이 즐거움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
지원할 예정이다”고 말했다.

박승근 기자

독자제보 ☎681-1666 / 구독신청 ☎681-1667
편집국 이메일 goseongnews@hanmail.net